



|              |  |
|--------------|--|
| 제목           | The Iran Wars: Spy Games, Bank Battles, and the Secret Deals That Reshaped the Middle East |
| 발행언어         | 영어   |
| 발행처          | Random House   |
| 발행일          | 2016. 8. 23.   |
| 저자           | Jay Solomon  |
| 출판국가         | 미국   |
| 페이지수         | 352  |
| ISBN 또는 ISSN | 978-0812993646   |

#### 내용 요약

이 책은 이란과 중동에 대한 미국의 순진한 정책을 드러내고 비판하려는 책이다. 리포터로서의 직관적인 시각과 역사학자로서의 서술적 능력을 가진 저자는 이란 고위층에서부터 미국 국무성의 존 케리(John Kerry)와 그의 협상 팀에 이르기까지의 인터뷰를 근거로 하여 글을 썼다. 저자는 부시(G. W. Bush)와 오바마(B. Obama) 행정부가 저지른 실수가 이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부시는 2001년 탈레반 정권, 2003년 후세인(S. Hussein) 정권의 전복 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 증대를 예견하지 못했다. 또 오바마가 이란과 협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노력은 실수였다. 예를 들어 2009년 오바마는 이란의 반정부주의자들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오바마가 이란 정권에 우호적으로 비춰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태도로 인해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에 이르는 '시아파 초승달'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강화되었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온 수니파 아랍의 불안감이 증폭된 것이다.

저자가 중요한 정보를 빠트린 것이 이 책의 단점이다. 가령 저자는 하메네이(A. Khamenei)가 핵무기에 대해 파트와(fatwa), 즉 이슬람법에 따라 지배하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을 설명하였지만 실제로 핵무기에 관한 한 파트와에 따른 지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이란의 반셈족주의 정서가 이란에 만연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바마 정권의 이란 정책을 상당 부분 해명하였다는데 이 책의 의의가 있다.